

수출 증가 힘입어 8월 무역수지 '흑자' 기록

전년 동월 대비 광주 4.1%·전남 54.5% ↑ 반도체·가전제품·화공품·철강제품 등 견인

8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0억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7% 증가한 51억2,200만 달러, 수입은 69.8% 증가한 40억5,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0억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누계기준으

로 보면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42.6% 증가했고 수입은 43.5% 증가해 무역수지는 98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전남지역 수출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2.6% 증가했고 수입은 43.5% 증가해 무역수지 기준 98억3,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2억600만달러, 수입은 34.3% 증가한 7억900만달러를 나타내며 무역수지는 4억9,7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17.4%), 가전제품(6.1%), 기계류(5.2%), 타이어(48.6%)는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14.9%)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3.3%), 가전제품(31.0%), 고무(239.7%), 화공품(16.5%)은 증가했

나 기계류(8.6%)는 감소했다.
나라별 수출은 동남아(36.8%), 중국(0.3%), 중동(59.4%)이 증가한 반면, 미국(19.4%), EU(2.6%)가 감소했으며 수입은 동남아(28.5%), 중국(48.0%), EU(11.6%), 미국(63.5%), 일본(48.7%)이 모두 증가했다.
전남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한 39억1,600만달러, 수입은 79.8% 증가한 33억4,500만달러를 나타

내 무역수지는 5억7,1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이 견인했다. 품목별 수출은 화공품(74.1%), 석유제품(71.0%), 철강제품(189.1%), 기계류(1.3%) 등이 증가했으며 수송장비(45.6%)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64.7%), 석탄(59.6%), 석유제품(149.8%), 철광(97.8%), 화공품(99.7%) 등이 모두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42.6% 증가했고 수입은 43.5% 증가해 무역수지는 98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미애 기자

aT, 파리 케이푸드 페어 성과 '풍성'

수출상담 146억, 상담액 3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케이푸드(K-Food) 수출 상담을 성공리에 진행했다.

aT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열린 파리 K-Food 페어 수출상담회에서 1,240만 달러(한화 146억원)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럽 현지와 한국 국내에서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수출상담 규모는 지난해(370만 달러) 대비 약 3배 증가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상담회에는 국내 수출업체 2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유럽 8개국 16개 바이어들은 김치·인삼제품 등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과 면류·소스류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업체와 오스트리아 바이어 간 구매 협약(MOU)이 성사되기도 했다.

aT는 성공적인 수출상담을 이끌기 위해 행사 개막 전에 제품리스트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공하고, 희망 상품을 중심으로 샘플을 바이어에게 직송함으로써 오프라인 대면 상담회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케이푸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aT 제공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T는 지난 9일부터 파리 현지 30개 레스토랑에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Business to Consumer·인터넷 쇼핑)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다. aT는 지난 9일부터 파리 현지 30개 레스토랑에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레스토랑엔 김치, 소스류, 새송이버섯, 유자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플라보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소진공, 바이어 유통 상담회

1대 1 맞춤형 컨설팅·B2B 계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한 바이어 유통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대형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국내 주요 유통

통채널과 1대1 상담을 통해 B2B계약 체결 및 유통채널 진출 등 새로운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총 100개 협동조합 중 약 44개 조합은 사전 신청을 통해 행사 당일 일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매칭을 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당일 현장에서 추가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TV홈쇼핑·백화점 등에 진출하기 위한 절차, 인허가 제반사항, 홍보·마케팅 등 조합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바이어 상담회는 지난 14일 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6일 부산 소상공인 전문교육장, 13일 서울 SETEC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15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한 데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이고, 참여 카드사는 9개다.

배달앱은 배달특급, 팜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을거져, 배달모아, 불러볼래, 배슬랭, 배슬랭세종, 대구로, 위메프,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달리아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 참여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요일은 상관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별 실적 달성 현황은 각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참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을 배정했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다 쓰면 행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시대 홍수대책' 세미나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환 환경부 장관, 정재성 순천대 교수)가 15일 나라이쿠음 광주통합청사에서 '기후위기시대의 홍수대책'을 주제로 홍수대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역주민들이 '기후위기시대의 홍수대책'에 있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세미나 주제에 관심있는 이들은 영

산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후위기시대에 홍수관리 정책과 대책을 2020년 대응홍수와 같이 논의하기 위해 3개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발표주제는 ▲이상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의 '하천부문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과제' ▲이정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사무관의 '기후위기와 홍수관리 정책' ▲박진원 (주)산상무의 '섬진강댐 하류 홍수피해 결과'였다. /우성진 기자

"한가위 소외 이웃과 함께해요"

추석명절을 앞두고 광주지방조달청·광주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한전KDN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15일 광주시 광산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엠마우스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김공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나눔

행사를 펼쳤다.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는 프로그램인 '한내요 전통시장 어린이 시장투어'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경제 공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는 프로그램인 '한내요 전통시장 어린이 시장투어'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경제 공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 송중옥 은행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이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활력을 되찾기 바라며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금융지원을 펼쳐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인공 광주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금된 성금 50여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에 전달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홍보물품과 직원들의 애장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빛고을 정령 리사이클'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기부 활동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현황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방역물품 및 생필품, 온누리 상품권 등 일상 속 필요한 물품 약 6000만 원 상당액을 기부했으며, 복지시설의 방역 소독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했다.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연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힘입고 지친 분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등 이번 명절은 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KDN

한전KDN이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을 본사와 전국 14개 사업소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한전KDN 본사 봉사대는 이번 사회공

헌활동을 펼쳤다.

한전KDN 김장현 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온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김공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15일 광주시 광산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엠마우스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최근 광주시 남구 무등시장에서 대학생 홍보대사와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전KDN 제공